



임상지표



부정맥

01 심박동기 및 제세동기 삽입술 후 합병증 발생률

지표 설명

심박동기 및 제세동기 삽입술 시행 후 30일 이내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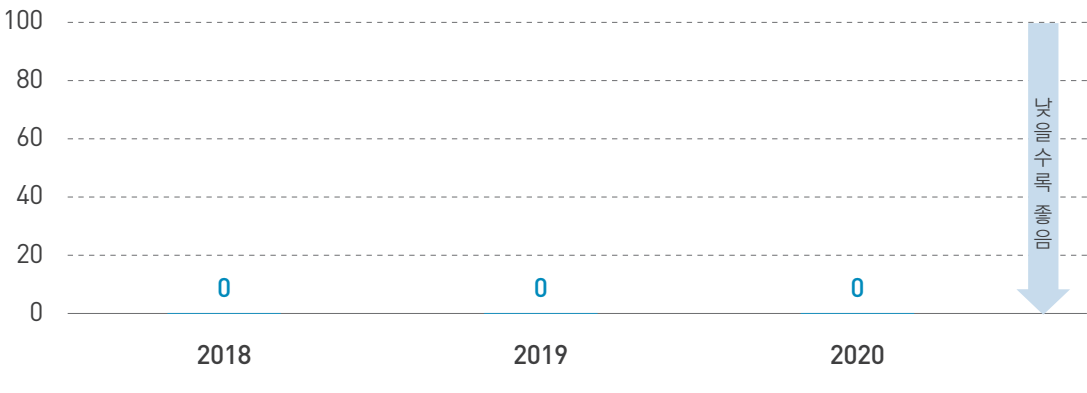
※ 합병증 : 기기 감염, 심내막염, 출혈, 기흉, 혈흉, 심낭압전, 심장천공, 폐색전증 등



지표결과

대상기간 : 2018 ~ 2020년

단위 : %



• 자료출처 : 인하대병원 전자의무기록



부정맥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필요

부정맥이란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맥이 생기면 곧바로 심장 박동이나 맥박이 불규칙해지거나, 혹은 분당 50회 미만으로 느려질수도 있으며(서맥증), 분당 90회 이상으로 빨라지는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빈맥증).

인공 심장박동기(Pacemaker)는 서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정상적인 심박수로 교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식형 제세동기(Implantable defibrillator)는 심실세동, 심실빈맥 등의 빠른 심장박동이 있는 부정맥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본래의 심박동으로 돌리는데 사용됩니다.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거나(심계항진), 호흡곤란, 흉통, 현기증, 실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정맥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정맥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맥 관련 진료문의 : 인하대병원 부정맥센터 032-890-2200)

02

고주파절제술 시행 후 합병증 발생률

지표 설명

고주파절제술 시행 후 30일 이내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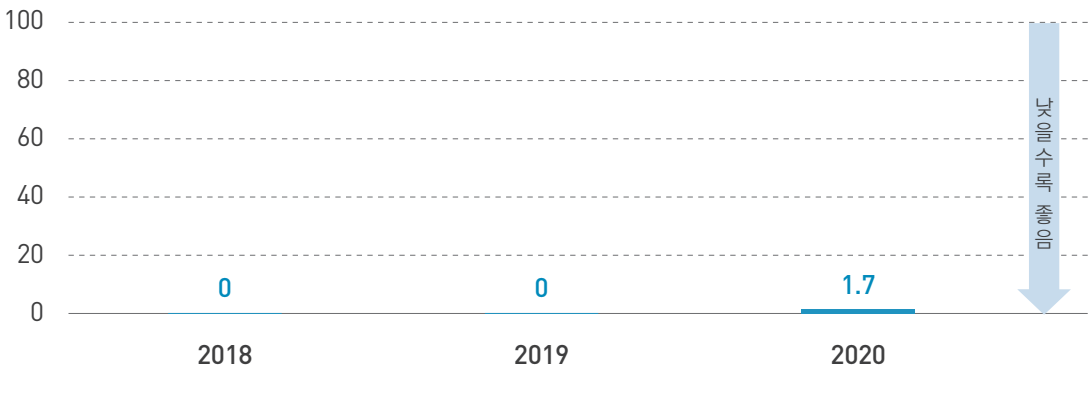
※ 합병증 : 심낭압전, 뇌졸중, 심방-식도루, 횡격막 신경마비, 서맥성 부정맥, 복강내출혈, 뇌출혈, 후두부종, 심낭염, 흉막삼출, 시술부위 거대혈종, 폐정맥협착증 등



지표결과

대상기간 : 2018 ~ 2020년

단위 : %



• 자료출처 : 인하대병원 전자의무기록



인천 최초로 최신행 심방세동 치료 냉각도자절제술 장비 도입

심방세동은 가장 흔한 부정맥입니다. 2020년 심방세동 환자는 10년 전 대비 2.5배 증가하였습니다. 심방세동은 심장 안에 '혈전'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일반 사람보다 약 5배 높습니다.

심방세동은 고령화 질환으로 발병자 10명 중 9명이 50대 이상입니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며, 건강검진을 통해 본인의 혈관과 맥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방세동은 심각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하대병원 부정맥센터는 심방세동의 주요 치료 방법인 고주파절제술과 냉각풍선도자절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 최초로 최신행 심방세동 치료 냉각도자절제술 장비(cryoballoon ablation)를 도입했습니다.